

한반도 평화지수

■ 2013년 2분기

북한 3차 핵 실험 여파로 대폭 하락



Executive Summary

□ 한반도 평화지수, 2013년 2분기 북한 3차 핵 실험 여파로 큰 폭 하락
(종합 평가) 2013년 1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북한의 3차 핵 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 지속과 대화 단절로, 남북 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한 30.1을 기록하여, 지난 1년간 다소 완화되었던 남북 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위기에 따른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발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천안함 사건(29.9)과 연평도 포격 사건(25.0) 당시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광명성 3호 발사(32.1) 당시 보다는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기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해 전문가들의 2013년 2/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긴장고조 발언 지속,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조치 등 남북 관계 전반의 위기감이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특징) 2013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문가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의 '긴장고조상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인식과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7.8p 하락한 26.1을 기록해 2012년 2분기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됐다. 이는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 신년사의 대화 의지 피력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북한의 3차 핵 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 국면 조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3년 2/4분기 기대지수도 전기 대비 21.3p 대폭 하락한 34.1을 기록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2분기의 남북 관계는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 고조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도발엔 대응이 필요하지만 대화의 창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밝힌바 있어 이러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도 크게 하락하였다. 1/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48.3보다 8.4p 하락한 39.9를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벤트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14.6p 하락한 33.5를 기록하여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안보리 제재 강화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포기 선언, 잇따른 3차 핵 실험과 남한에 대한 '최종 파괴' 위협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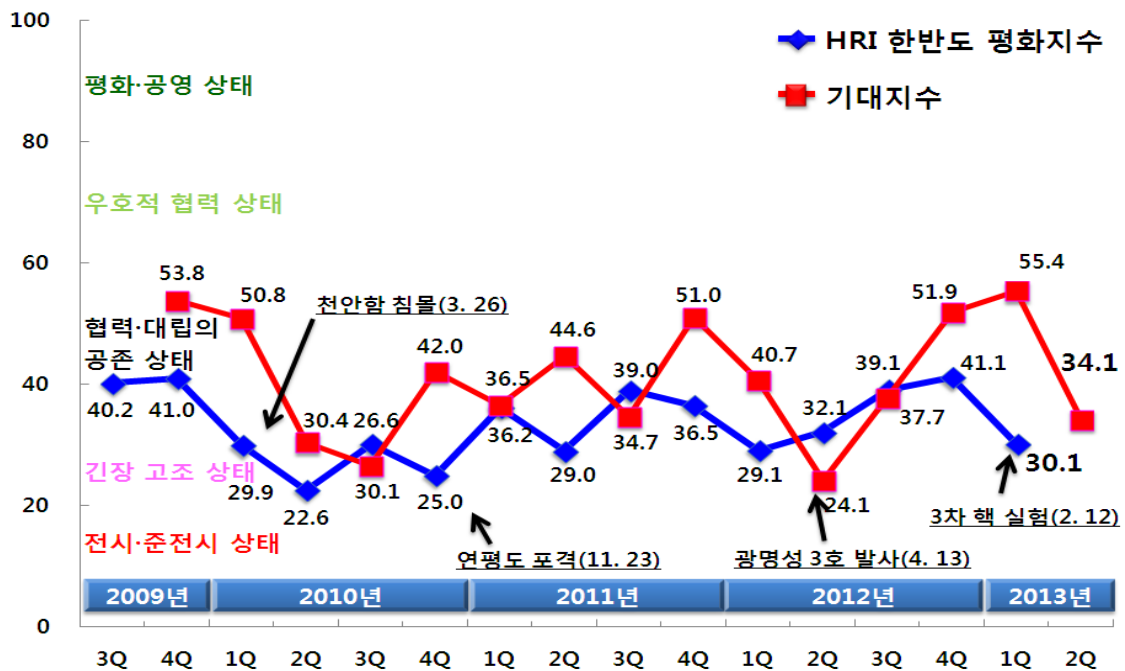
넷째, 성향별 평가에서는 성향 구분 없이 실적치와 기대치 모두 전문가 평가가 동반 하락했다.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27.1, 25.3, 24.5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7.2p, 11.8p, 6.1p 하락하여 부정적 평가로 반전했다. 특히 중도 성향의 큰 폭 하락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을 표명해 지난 분기에 기대감이 높았던 중도 성향의 전문가 상당수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대지수도 성향 구분 없이 모두 하락함으로써 2분기 남북 관계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다.

□ 2013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 (종합 평가)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북한의 3차 핵 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 지속과 대화 단절로, 남북 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

- 2013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한 30.1을 기록하여, 지난 1년간 다소 완화되었던 남북 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분기 41.1을 기록한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11.0p 하락한 30.1을 나타냄으로써 남북 간 긴장이 보다 고조되었음을 보여줌
 - 북핵 위기에 따른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발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천안함 사건(29.9)과 연평도 포격 사건(25.0) 당시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광명성 3호 발사(32.1) 당시 보다는 심각한 것으로 평가
- 기대지수는 한반도 평화지수보다 큰 폭으로 하락해 전문가들의 2013년 2/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2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21.3p 대폭 하락한 34.1로 나타나, 남북 관계는 당분간 '긴장고조상태'가 지속될 전망
 - 이는 북한의 긴장고조 발언 지속,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조치 등 남북 관계 전반의 위기감이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2009~2013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 (특징 분석) 주관적·객관적 지수 모두가 하락세로 반전했으며, 특히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대폭 하락

- 1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6.1, 정량분석지수는 39.9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분기보다 모두 하락
 - 지난 분기에는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가 상승하였으나, 이번 분기에는 모든 분야의 지수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정치·군사 분야의 이벤트지수의 큰 폭 하락이 정량분석지수의 하락세를 견인
-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는 연평도 사건 직후인 2010년 4분기 36.5보다도 낮은 34.1을 기록함으로써 2분기 남북관계의 불안을 예고
 - 이는 북한이 3월 이후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 군 통신선 차단,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 개성공단 진입 금지 및 근로자 철수 등의 조치가 부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평가
-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간 격차는 여전하여, 전문가들이 현 상황을 실제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여전
 -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평가인 실적치로 보는 정량분석지수 간의 격차(| 전문가평가지수 - 정량분석지수 |)는 13.8p로, 지난 분기 14.4p와 크게 다르지 않음

< 2011~2013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교류지수		
			이벤트지수			
'13-1분기	30.1 (▽11.0)	26.1 (▽7.8)	39.9 (▽8.4)	33.5 (▽14.6)	46.2 (▽2.3)	34.1 (▽21.3)
'12-4분기	41.1 (▲2.0)	33.9 (▲6.3)	48.3 (▽2.2)	48.1 (▽3.6)	48.5 (▽0.7)	55.4 (▲3.5)
'12-3분기	39.1 (▲7.0)	27.6 (▲0.4)	50.5 (▲13.5)	51.7 (▲15.4)	49.2 (▲11.5)	51.9 (▲14.2)
'12-2분기	32.1 (▲3.0)	27.2 (▲8.6)	37.0 (▽2.5)	36.3 (▽5.7)	37.7 (▲0.8)	37.7 (▲13.6)
'12-1분기	29.1 (▽7.4)	18.6 (▽13.3)	39.5 (▽1.6)	42.0 (▽9.4)	36.9 (▲6.1)	24.1 (▽16.6)
'11-4분기	36.5 (▽2.5)	31.9 (▽8.1)	41.1 (▲3.1)	51.4 (▲3.9)	30.8 (▲2.3)	40.7 (▽10.3)
'11-3분기	39.0 (▲10.0)	40.0 (▲18.2)	38.0 (▲1.9)	47.5 (▲2.3)	28.5 (▲1.6)	51.0 (▲16.3)
'11-2분기	29.0 (▽7.2)	21.8 (▽9.3)	36.1 (▽5.2)	45.2 (▽2.8)	26.9 (▽7.7)	34.7 (▽9.9)
'11-1분기	36.2	31.1	41.3	48.0	34.6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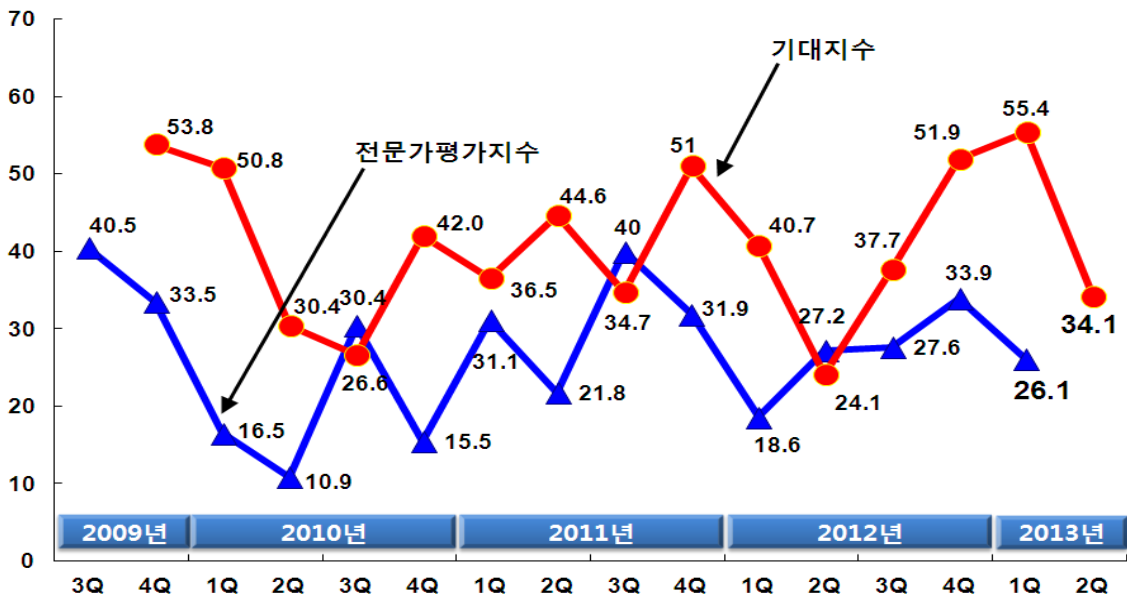
주 : ()내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감을 표시(p).

○ (항목별 평가) 북한 핵 실험에 따른 제재 강화와 이에 따른 북한의 대북 위협 수위 고조 속에 전문가 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 모두 하락

(1) 전문가평가지수 (2012년 4분기 : 33.9 → 2013년 1분기 : 26.1)

- 총 107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의 '긴장고조상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7.8p 하락한 26.1을 기록해 2012년 2분기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
- 이는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 신년사의 대화 의지 피력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북한의 3차 핵 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 국면 조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2013년 2/4분기 기대지수도 전기 대비 21.3p 대폭 하락한 34.1을 기록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2분기의 남북 관계가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
- 기대지수 하락은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 고조 속에 남한의 '도발 시 원점 타격' 등의 강경 대응 발언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에 기인
- 다만, 기대지수가 1분기 전문가평가지수보다 높은 것은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 고조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도발엔 대응이 필요하지만 대화의 창은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밝힌바 있어 이러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

< 2009~2013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2) 정량분석지수 (2012년 4/4분기 : 48.3 → 2013년 1/4분기 : 39.9)

- 1/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48.3보다 8.4p 하락한 39.9를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분석지수는 2012년 하반기 50선을 상회하였으나,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 모두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남북 관계가 총체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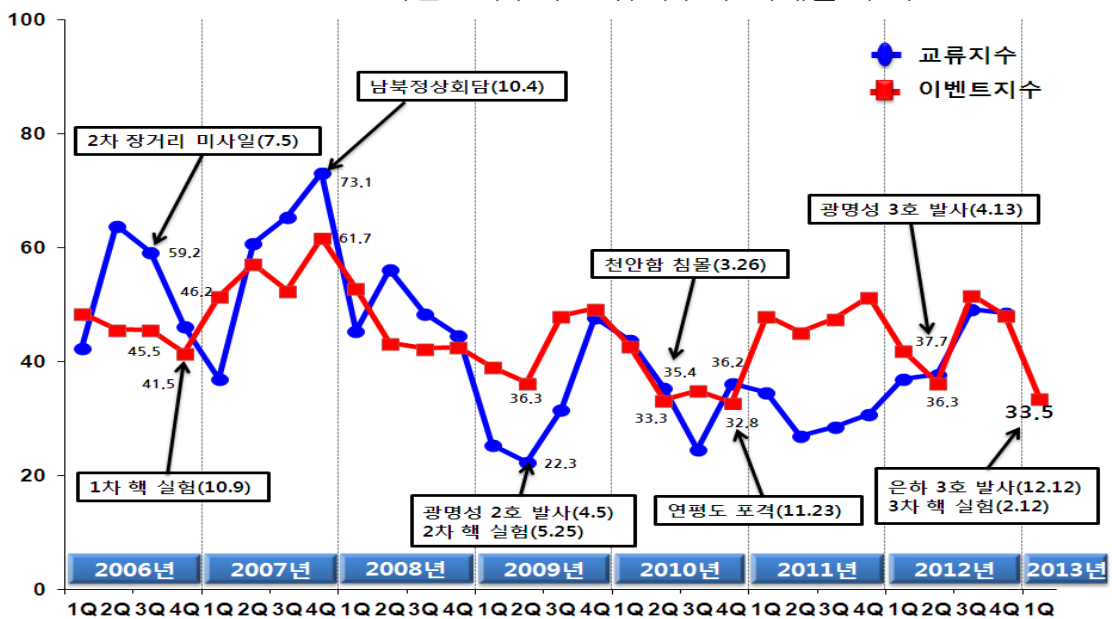
① 이벤트지수 (2012년 4/4분기 : 48.1 → 2013년 1/4분기 : 33.5)

- 이벤트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14.6p 하락한 33.5를 기록하여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줌
- 이는 안보리 제재 강화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포기 선언, 잇따른 3차 핵 실험과 남한에 대한 '최종 파괴' 위협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특히 1/4분기 이벤트지수는 2009년 2차 핵 실험(36.3), 천안함 침몰(33.3), 연평도 포격(32.8) 당시와 유사해 긴장 고조 상황이 심각함을 방증

② 교류지수 (2012년 4/4분기 : 48.5 → 2013년 1/4분기 : 46.2)

- 교류지수는 전기 대비 2.3p 하락한 46.2를 기록하여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임
- 교류지수의 하락은 전 분기 대비 남북교류협력지원액(4분기 8억 6백만→1분기 25억)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액이 전 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기인(4분기 51억 8,500만원→1분기 6억 1,500만원)

< 2006~2012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분석)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보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중도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많이 하락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27.1, 25.3, 24.5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7.2p, 11.8p, 6.1p 하락하여 부정적 평가로 반전
 - 중도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큰 폭 하락한 것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을 표명해 지난 분기에 기대감이 높았던 중도 성향의 전문가 상당수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2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는 진보 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향 구분 없이 기대지수는 현재 평가지수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남
 - 기대지수도 성향 구분 없이 모두 하락함으로써 2분기 남북 관계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대
 - 이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최근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까지의 대남 강경 행보를 지속하면서, 전문가들이 다음 분기에 획기적인 남북 관계의 출구 모색 마련은 힘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HRI 평화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3. 1분기	27.1 (▽7.2)	33.7 (▽23.9)	25.3 (▽11.8)	33.5 (▽23.6)	24.5 (▽6.1)	35.3 (▽15.7)	26.1 (▽7.8)	30.1 (▽11.0)	34.1 (▽21.3)
'12. 4분기	34.3 (▲3.9)	57.6 (▲8.4)	37.1 (▲8.5)	57.1 (▲9.5)	30.6 (▲4.0)	51.0 (▽3.4)	33.9 (▲6.3)	41.1 (▲2.0)	55.4 (▲3.5)
'12. 3분기	30.4 (▲0.3)	49.2 (▲8.2)	28.6 (▽0.9)	47.6 (▲10.3)	26.6 (▲0.5)	54.4 (▲18.8)	27.6 (▲0.4)	39.1 (▲7.0)	51.9 (▲14.2)
'12. 2분기	30.1 (▲12.2)	41.0 (▲19.1)	29.5 (▲11.7)	37.3 (▲14.7)	26.1 (▲5.0)	35.6 (▲6.2)	27.2 (▲8.6)	32.1 (▲3.0)	37.7 (▲13.6)
'12. 1분기	17.9 (▽19.1)	21.9 (▽23.0)	17.8 (▽9.8)	22.6 (▽17.1)	21.1 (▽11.0)	29.4 (▽8.7)	18.6 (▽13.3)	29.1 (▽7.4)	24.1 (▽16.6)
'11. 4분기	37.0 (▽2.5)	44.9 (▽5.7)	27.6 (▽12.3)	39.7 (▽12.0)	32.1 (▽5.2)	38.1 (▽12.3)	31.9 (▽8.1)	36.5 (▽2.5)	40.7 (▽10.3)
'11. 3분기	39.5 (▲11.5)	50.6 (▲11.2)	39.9 (▲23.1)	51.7 (▲23.4)	37.3 (▲14.6)	50.4 (▲13.8)	40.0 (▲18.2)	39.0 (▲10.0)	51.0 (▲16.3)
'11. 2분기	28.0 (▽1.9)	39.4 (▽4.2)	16.8 (▽16.2)	28.3 (▽18.8)	22.7 (▽3.5)	36.6 (▽0.7)	21.8 (▽9.3)	29.0 (▽7.2)	34.7 (▽9.9)
'11. 1분기	29.9	43.6	33.0	47.1	26.2	37.3	31.1	36.2	44.6

경제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yhlee@hri.co.kr, 02-2072-6222)

홍순직 수석연구위원(sjhong@hri.co.kr, 02-2072-6221)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¹⁾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	20이하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의 합.

< 부록 3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13년 2월 26일~3월 8일 (11日 간)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등 북한관련 전문가 107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2. 조사 내용

□ 남북관계 분석 및 전망

1. 정치·군사 관계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0.2	11.4
2. 그렇지 않다	44.9	31.4
3. 보통이다	13.1	43.8
4. 그렇다	1.9	13.3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6.7	13.3
2. 그렇지 않다	43.9	32.4
3. 보통이다	8.4	42.9
4. 그렇다	0.9	10.5
5. 매우 그렇다	0	1.0
계	100.0	10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50.5	12.4
2. 그렇지 않다	39.3	41.9
3. 보통이다	6.5	33.3
4. 그렇다	3.7	12.4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8	2.9
2. 그렇지 않다	17.8	10.5
3. 보통이다	42.1	36.2
4. 그렇다	36.4	47.6
5. 매우 그렇다	0.9	2.9
계	100.0	10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4.6	12.4
2. 그렇지 않다	61.7	39.0
3. 보통이다	2.8	39.0
4. 그렇다	0.9	9.5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6) (전망)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0.3	1.9
2. 그렇지 않다	57.0	19.0
3. 보통이다	23.4	41.9
4. 그렇다	8.4	36.2
5. 매우 그렇다	0.9	1.0
계	100.0	100.0

2 경제적 관계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8.7	14.3
2. 그렇지 않다	64.5	45.7
3. 보통이다	16.5	38.1
4. 그렇다	0	1.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2.1	1.9
2. 그렇지 않다	40.2	15.2
3. 보통이다	24.3	29.5
4. 그렇다	20.6	48.6
5. 매우 그렇다	2.8	4.8
계	100.0	100.0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4.0	5.7
2. 그렇지 않다	51.4	24.8
3. 보통이다	26.2	42.9
4. 그렇다	8.4	26.7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6.5	3.8
2. 그렇지 않다	49.5	28.6
3. 보통이다	35.5	45.7
4. 그렇다	8.4	21.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9.6	11.4
2. 그렇지 않다	65.4	39.0
3. 보통이다	15.0	42.9
4. 그렇다	0	6.7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5.6	1.0
2. 그렇지 않다	52.3	16.2
3. 보통이다	29.0	40.0
4. 그렇다	12.1	40.0
5. 매우 그렇다	0.9	2.9
계	100.0	100.0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7.1	18.1
2. 그렇지 않다	64.5	40.0
3. 보통이다	8.4	41.0
4. 그렇다	0	1.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2.1	18.1
2. 그렇지 않다	49.5	44.8
3. 보통이다	8.4	33.3
4. 그렇다	0	3.8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6.2	14.3
2. 그렇지 않다	59.8	48.6
3. 보통이다	14.0	36.2
4. 그렇다	0	1.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7.1	13.3
2. 그렇지 않다	60.7	50.5
3. 보통이다	12.1	33.3
4. 그렇다	0	2.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1분기(%)	4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8.4	2.9
2. 그렇지 않다	53.3	17.1
3. 보통이다	29.0	34.3
4. 그렇다	8.4	43.8
5. 매우 그렇다	0.9	1.9
계	100.0	100.0